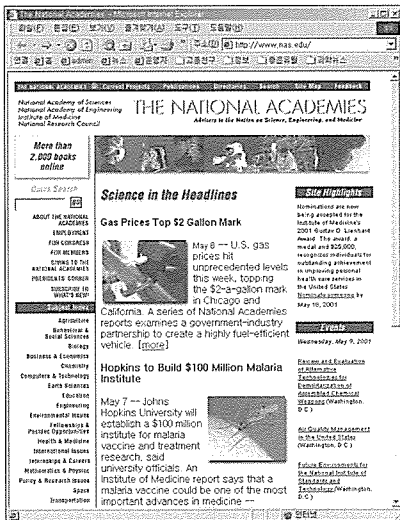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 미국 국립아카데미 (www.nas.edu)



뿐더러, 정책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인 안목,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자문을 해줄 과학자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와 같은 도움을 워싱턴에 있는 국립아카데미(또는 국립과학아카데미)를 통해서 얻는다. 1863년에 의회 기구인 국립과학아카데미로 설립된 후 국립연구위원회, 1964년 국립기술아카데미, 1970년 의학연구소까지 폭넓은 과학 전반을 포함하는 국립아카데미로 변모했다.

현재 과학과 기술, 의학에 대해서 국가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국가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5천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거의 매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온라인으로 이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국립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립교통연구위원회가 최근에 제시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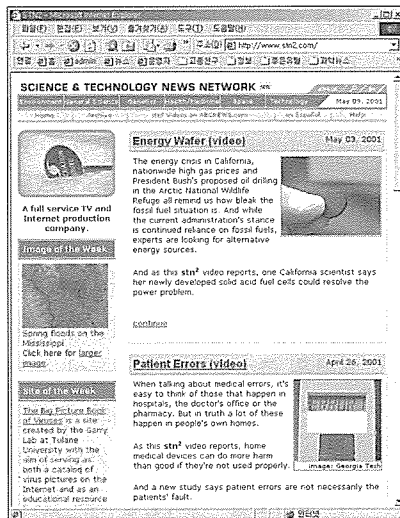
서유럽과 캐나다는 버스과 열차 같은 대중교통이 도시교통량의 10% 이상을 소화하는데 반해, 미국은 2%로 매우 낮다. 이 보고서는 서유럽과 캐나다가 어떤 교통 정책과 방법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량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2천권이 넘는 과학관련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왼쪽의 메뉴단을 보면 행동학과 사회과학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오른쪽에 매일 바뀌는 이벤트란에서는 각 소위원회나 프로젝트에 따른 세미나 일정을 제시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도 이처럼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학과 기술, 건강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요직의 정책가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거나 추진하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바로 과학자.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를 찾기도 어려운

## 과학과 기술뉴스 네트워크 (www.stn2.com)



숙련된 연주자의 바이올린 연주 음악을 듣는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바다가 재라면 믿을 수 있을까? 5월 첫째주 「네이처」에 소개된 현악기 연주자 바다가재물, STN2에서는 CD모음집과 유사한 바다가재의 연주와 영상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과학과 기술을 좀더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영상을 보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과학뉴스와 다큐멘터리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여기 과학과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과학과 기술 뉴스네트워크(STN2)'에 가면 이와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자주 새로운 뉴스와 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공된 동영상만을 차근차근 보면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고 재미있다. 나노기술 이야기 'Thinking Small', 화석 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대체할 연료전지 이야기 'Energy Wafer', 의학적 오류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 기기 오류로 가정에서 더 잘 발생한다는 'Patient Error' 등 다양한 과학뉴스 프로그램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ST**

朴應緒 (동아 사이언스 기자)